

농어촌공, 지역 공공기관과 함께 2학기 천원의 아침밥 제공

- 13천여명 지역대학생 아침밥 지원으로 쌀 소비 촉진과 식비 부담 완화 -

한국농어촌공사(사장 이병호)는 「대학생 든든한끼 아침밥」사업의 확대 및 지속 추진을 위하여 29일 오후 합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. 이번 협약은 8개 기관(公社,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, 한국전력공사, 수협은행, 한국도로공사,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, 한국공항공사, 건강보험심사평가원)과 2개 대학교(조선대학교, 초당대학교)가 참여해 총 10개 기관이 함께한다.

올해 1학기부터 공사는 전남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 3곳과 함께 ‘대학생 든든한끼 아침밥’ 사업을 시범 운영하며, 쌀 소비 촉진과 아침 식사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물가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 없이 대학생들이 한 끼 1천원으로 양질의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.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높은 호응과 만족도(94.4%)를 이끌어냈다.

이번 협약을 통해 2학기에도 광주·전남지역 공공기관까지 협력을 강화하고, 대학생들의 아침밥 지원 기간 및 대상 인원을 확대할 예정이다.

이병호 사장은 “10개 기관과 함께하는 이번 사업이 쌀 소비 촉진과 대학생의 식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.”며 “공사는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상생협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”고 전했다.

담당 부서	총무인사처	책임자	부 장	송영수 (061-338-6041)
	총무부	담당자	대 리	장민지 (061-338-6056)